은행앱서 가상자산으로 결제…광주은행, 디지털 전환 '속도'

토스와 스테이블코인 QR결제 기술검증 완료
앱 연계해 결제부터 가맹점 지갑 전송까지 구현
2차 가맹점 실증 추진…디지털자산 서비스 확장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대비한 금융권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광주은행이 토스와 손잡고 디지털자산 서비스 실증에 나섰다.

광주은행은 토스(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이승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기반 QR결제 기술검증(PoC)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술검증은 광주은행 앱을 이용하는 고객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고, 향후 서비스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광주은행 모바일 앱과 토스 앱, 토스플레이스 결제 단말을 연계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QR결제 과정을 구현했다. 고객이 광주은행 앱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선택하면 토스 앱의 QR스캔 화면으로 연결되며, 가맹점 결제 단말의 QR을 스캔해 결제 금액을 확인한 뒤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결제가 완료되면 스테이블코인이 고객 지갑에서 가맹점 지갑으로 전송되고, 결제 결과는 다시 광주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앱 간 연계를 통한 결제 전과정을 구현했다.

광주은행은 이번 PoC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송금과 QR결제 기능을 구현하고, 디지털자산 관련 정보 제공 기능도 함께 구성했다.

이번 검증은 상용 서비스와 분리된 별도 환경에서 진행됐다. 가상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결제 과정을 구현했으며, 실제 고객 정보나 실제 자산은 사용하지 않고 결제와 정산 과정이 사전에 설계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광주은행과 토스는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2차 PoC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객이 거치는 단계를 줄여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전남광주지역 실제 가맹점을 대상으로 추가 검증을 진행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변미경 광주은행 부행장은 "토스와 함께한 PoC는 디지털자산 결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고객 관점에서의 이용 경험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의 금융서비스와 토스의 결제 인프라를 연계해 고객이 익숙한 환경에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21년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업무협약을 맺고 핀테크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금융 신규 서비스와 공동 마케팅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토스플레이스와 손잡고 개인사업자를 위한 단말기 이용료 할인과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는 패키지를 선보이기도 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동신대 한의과대학 창업동아리 WELS 소속 학생들이 부항을 현대적 홈 웰니스 제품으로 재해석하고 광주 시내 약국에 정식 입점시키면서 학생 창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동신대 한의대 창업동아리 '부항' 제품, 시장 진출

WELS팀 전통 한의학 현대적 홈 웰니스 제품으로 재해석
각종 공모전 수상…팝업 매출 100만원 돌파 후 약국 입점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전통 한의학의 '부항'을 현대적인 홈 웰니스 제품으로 재해석해, 실제 시장 진출까지 이뤄내며 학생 창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11일 동신대에 따르면 한의과대학 김상원(한의학과 3년), 정우성·박연후(한의예과 1년) 학생 등으로 구성된 창업동아리 'WELS'는 원광대·우석대 한의과대학 학생들과 함께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리콘 홈 웰니스 셀프케어 컵'을 개발했다.

제품 개발에 그치지 않고 창업대회 수상, 유상 납품, 소비자 검증, 오프라인 판매를 거쳐 약국 정식 입점까지 사업화를 이어가고 있다.

WELS는 지난 4월 원광대 한의과대학 본과진입식에 제품 200세트를 유상 납품하며 첫 실사용 검증에 나섰다. 72명의 유효 응답을 분석한 결과 흡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점을 기록했다. 사용자들이 제시한 '사이즈 다양화' 요구도 후속 제품 개발에 반영했다.

창업 아이디어의 경쟁력도 잇따라 인정받았다.

지난 5월 '2026 GIST-호남권대학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8월 '2026 대학(원)생 한의약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인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수상팀 투자유치 트랙에도 선정돼 1대1 컨설팅과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또 전북현대모터스FC와 전북권 대학이 함께한 'Drive Up' 창업 프로젝트에서는 폐유니폼·폐현수막을 활용한 업사이클 파우치와 셀프케어 컵을 결합한 굿즈로 우수상을 받았다.

9월에는 '모두의 창업 대학리그 해커톤'에서 우수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사업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특히 WELS의 성과는 창업대회 수상에 머물지 않고 실제 판매와 유통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8월 광주 메가하이약국에서 태영약방과 함께 첫 팝업스토어를 열고 학생들이 직접 제품 진열과 설명, 결제 등을 맡아 이틀 동안 100만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WELS는 팝업스토어에서 확인한 소비자 반응을 바탕으로 제품 구성과 판매 가격을 조정했고, 이후 메가하이약국 정식 입점에도 성공했다. 이를 통해 상시 판매 채널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한의원과 약국 등 B2B 유통망 확대를 위한 첫 레퍼런스도 마련했다.

사업화를 위한 기반도 다지고 있다. 현재 관련 특허 2건과 부항기·흡착식 마사지기 디자인 2건을 출원했으며, 정부지원사업에도 누적 14건 지원했다.

특히 '모두의 창업' 대학리그와 일반부문 2라운드에 동시에 진출해 8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확보했다. 확보한 자금은 신규 컬러 시제품과 소형 금형, 패키지 개발 등에 투입해 제품 고도화에 활용하고 있다.

WELS를 이끄는 김상원씨는 "한의학 전공지식과 실제 사용자 데이터를 접목해 제품을 고도화하고 한의원·약국 등 유통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통 한의학을 현대인의 일상적인 셀프케어 제품으로 확장해 한의약 분야 학생 창업 모델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전남 수출기업, EU 포장재 규제 대응 실무 배운다

전남FTA센터, 오늘 aT서 'FTA 통상아카데미 - EU규제' 교육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산하 전남FTA통상진흥센터는 12일 aT공사 본사에서 지역 중소 수출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6 FTA 통상아카데미 - EU규제(PPWR) 기업 대응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인 PPWR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기업의 수출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포장재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현장 사례와 문서 작성 실무 중심으로 다룬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소속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PPWR의 기본 개념과 기업 대응 사례, 기술문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한다. 실제 수출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담당자들이 자사 제품의 포장과 관련 서류를 점검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교육을 수료한 기업에는 '2026년 경영안정자금 우대기업' 선정에 필요한 교육이수 실적 1회를 인정한다. 수료만으로 우대기업에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우대기업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 교육 실적으로 반영된다.

이성희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지역 기업들이 해외 시장의 무역 규제와 기술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실무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남FTA통상진흥센터는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역 기업의 통상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보성 말차·초코말차라떼, 미국 코스트코 '노크'

전남광주농기원, 산관연 협력 2종 개발…12월 입점 목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원은 보성산 말차를 활용한 '말차라떼'와 '초코말차라떼' 2종을 상품화하고, 오는 12월 미국 코스트코 40개 점포 입점을 목표로 시범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내외 박람회 전시·홍보와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판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제품은 전남광주농기원과 보성군, 보성차생산자조합, ㈜아로마빌커피의 보성 차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의 성과다.

전남광주농기원은 최근 확대되는 말차 소비시장에 대응하고 국내산 차 원료 소비를 늘리기 위해 연구기관의 제품 개발 기술, 생산자조합의 원료 생산, 기업의 제조·유통 역량을 연계했다.

전남광주농기원 차산업연구소는 말차 함량에 따른 품질특성과 관능평가를 토대로 제품별 배합비와 제조법을 확립했다.

말차라떼에는 보성산 말차를 9% 배합해 말차 특유의 풍미와 기호성을 높였다. 초코말차라떼에는 말차 4.5%와 코코아파우더 9%를 넣어 말차와 초콜릿의 풍미가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제품에 사용된 말차는 보성차생산자조합이 직접 생산·공급한다. 조합은 첫물차 2~3엽기에 차광률 95%로 20일간 재배해 원료를 생산하고, 생산부터 공급까지 품질을 일관되게 관리한다.

이번 상품화는 산업체 수요를 연구개발에 반영하고, 개발 기술을 실제 제품 생산과 수출 추진으로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관별로는 전남광주농기원이 제품 개발과 기술지원을, 보성군이 정책·행정 지원을 맡았다. 보성차생산자조합은 원료 생산과 품질관리, ㈜아로마빌커피는 제품 제조와 유통을 담당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

